

『금강경』 분과와 명칭 해석의 고찰*

- 백용성 주석서와 비교하여 -

김호귀**

• 목 차 •

- I. 서언
- II. 인도찬술 주석서
 - 1. 무착의 7종의구
 - 2. 천친의 27단의
 - 3. 금강선의 12분과
- III. 중국 및 한국찬술 주석서
 - 1. 길장의 3단2주설
 - 2. 지엄의 3단분과
 - 3. 중봉명본의 32분과 명칭 해석
 - 4. 종륙·여기의 27단의
 - 5. 왕화룡의 32분과 명칭
 - 6. 함허득통의 3단10분과
- IV. 용성 주석서의 분과 및 명칭 해석
 - 1. 『상역과해금강경』의 54분과
 - 2.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의 명칭 해석
- V. 결어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 2011-361-A00008).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교수.

© 『大覺思想』 제35집 (2021년 6월), pp.99-132.

한글요약

『금강경』에 대한 최초의 주석은 인도에서 無著이 지은 『金剛般若論』이다. 이어서 그 속가 동생인 天親이 지은 『金剛般若波羅蜜經論』 및 천친의 제자인 金剛仙이 지은 『金剛仙論』이 전한다. 이들 세 문헌에는 『금강경』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분과를 설정하여 해석한 점을 고찰하였다. 이후 중국에서는 무수히 많은 주석서가 출현하였는데 그 가운데 吉藏의 『金剛般若疏』, 智嚴의 『金剛般若波羅蜜經略疏』, 中峰明本の 『金剛般若略義』, 宗泐·如玘의 『金剛般若波羅蜜經註解』, 孫念劬의 『金剛經彙纂』에 보이는 분과 및 32분과의 명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찬술로 涵虛의 『金剛般若波羅蜜經繪貫』의 분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아홉 명의 주석서에 보이는 분과의 고찰 및 32분과 명칭에 대한 해석과 백용성의 『詳譯科解金剛經』 및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의 두 주석서를 비교하여 용성의 주석서에 보이는 분과의 특징 및 32분과 명칭의 해석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들 다종의 주석서는 분과와 32명칭에 대한 해석과 차별되는 점으로 용성의 두 종류의 주석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의의가 있다.

첫째, 무착의 7종의, 금강선의 12분과, 길장의 3단2주, 지엄의 3단, 함허의 3단10문 등의 분과는 경문의 형식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분과이다. 이와 비교하여 용성은 『상역과해』를 통해서 54분과로 구분하고 있는데, 문답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경전의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천친의 27단의, 종륙·여기의 27단의 분과는 경전의 문답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그 문답내용에 따른 분과이다.

셋째, 32분과 명칭에 대한 해석에서 증봉명본은 32분과 명칭에 상응하는 경문의 내용을 들어 해석하였다. 그리고 왕화룡은 32분과 명칭이 지니고 있는 일련의 상관 관계를 중심으로 그 인과성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였다. 이에 비해 용성의 32분과 명칭에 대한 해석은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이다. 이를 통해서 32분과 명칭의 용어 자체에 독자적인 방식으로 충실한 해석을 가하였다. 그리고 최초의 32분과 명칭에 대한 한글해석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주제어

금강반야론, 금강반야바라밀경론, 금강선론, 금강반야소, 금강반야바라밀경약소, 금강반야약소, 금강반야약의, 금강반야바라밀경주해, 금강경회찬, 금강반야바라밀경원관, 상역과해금강경,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

I. 서언

수많은 대승경전 가운데 『금강경』만큼 여러 나라에서 오랜 세월이 걸쳐 독송된 경전도 그리 많지 않다. 또한 『금강경』만큼 많은 주석서를 배출한 경전도 드물다. 『금강경』에 대한 이들 다종의 주석서 가운데서 경전의 분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거기에 제기된 분과의 특징과 32분과 명칭에 대한 다종의 해석도 고찰해본다. 그리고 이들 분과의 특징과 32분과 명칭의 해석에 비추어 백용성의 분과 및 32분과 명칭에 대한 한글 해석의 특징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용성이 이해하고 있는 『금강경』에 대한 안목이 어떤 것인지, 또한 용성의 주석서가 어떤 측면으로 저술되었는지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고찰해보고자 하는 『금강경』의 주석서로 인도 찬술문헌으로는 무착의 『금강반야론』, 천친의 『금강반야바라밀경론』, 금강선의 『금강선론』의 주석서를 대상으로 한다. 중국 및 한국의 찬술문헌으로는 隋의 길장의 『금강반야소』, 唐의 지엄의 『금강반야바라밀경약소』, 元의 중봉명분의 『금강반야약의』, 明의 宗泐·如玘의 『금강반야바라밀경주해』, 淸의 孫念勛의 『금강경회찬』, 조선 초기 涵虛의 『금강반야바라밀경운관』 등의 주석서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9명의 주석서에 보이는 분과의 고찰 및 32분과명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백용성의 『상역과해금강경』 및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의 두 주석서와 비교하여 용성주석서에 보이는 분과 및 32분과 명칭의 해석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인도찬술 주석서

1. 무착의 7종 義句

『금강경』에 대하여 가장 먼저 출현한 주석서는 인도의 논사 無著(300년~390 무렵)의 『金剛般若論』¹⁾이다. 수나라 때 達摩笈多의 번역본에 의하면, 무착은 경

1) 無著菩薩이 지은 『金剛般若論』은 隋代 南印度의 三藏法師 達摩笈다가 번역하였는데 2권본(大正藏25, 757上-66上)과 3권본(大正藏25, 766中-81上)의 두 가지가 있다.

문의 전체를 7종의 義句로 파악하였다. 7종의 의구는 곧 ① 種性不斷, ② 發起行相, ③ 行所住處, ④ 對治, ⑤ 不失, ⑥ 地, ⑦ 立名이다.²⁾ 이 가운데 앞의 여섯 가지는 보살이 이루어가는 구경의 목적을 현시한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이 법문의 성립을 현시한 것이다.

- ① 種性不斷의 의구는 이 금강반야바라밀 이야말로 佛種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주려는 까닭에 세상에 유행되었다는 것이다. 수보리가 여래를 찬탄한 대목이 이에 해당한다.³⁾
- ② 發起行相의 의구는 수보리의 총론적인 질문이 이에 해당한다.⁴⁾
- ③ 行所住處의 의구는 경문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곧 발심한 보살이 어떻게 주해야 하는가를 물은 것으로 18종류로 세분하였다. 하나는 發心住處이다. 둘은 波羅蜜相應行住處이다. 셋은 欲得色身住處이다. 넷은 欲得法身住處이다. 다섯은 於修道得勝中無慢住處이다. 여섯은 不離佛出時住處이다. 일곱은 願淨佛土住處이다. 여덟은 成熟衆生住處이다. 아홉은 遠離隨順外論散亂住處이다. 열은 色及衆生身搏取中觀破相應行住處이다. 열하나는 供養級侍如來住處이다. 열둘은 遠離利養及疲乏熱惱故不起精進及退失等住處이다. 열셋은 忍苦住處이다. 열넷은 離寂靜味住處이다. 열다섯은 於證道時遠離喜動住處이다. 열여섯은 求教授住處이다. 열일곱은 證道住處이다. 열여덟은 上求佛地住處이다.⁵⁾ 무착에 의하면 행소주처의 18종주처는 다시 8종주처로 요약된다. 하나는 攝住處이고, 둘은 波羅蜜淨住處이며, 셋과 넷은 欲住處이고, 다섯부터 열여섯까지는 離障礙住處이며, 열일곱은 淨心住處이고, 열여덟은 究竟住處이며, 전체에 통하는 것으로 廣大住處와 甚深住處가 있어 도합 8종주처이다.⁶⁾
- ④ 對治는 바라밀에 상응하는 행위와 18주처를 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치하여 단제해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 경문의 곳곳에서 ‘일체에 대하여 집착하

2) 無著菩薩 造, 達磨笈多 譯, 『金剛般若論』 卷上, (大正藏25, 757上), “七義句者: 一、種性不斷, 二、發起行相, 三、行所住處, 四、對治, 五、不失, 六、地, 七、立名”

3) 위의 책, (大正藏25, 757上)

4) 위의 책, (大正藏25, 757上-中)

5) 위의 책, (大正藏25, 757中-758上)

6) 위의 책, (大正藏25, 758中-下)

지 말라’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⁷⁾

- ⑤ 不失은 자성이 있다[有]고 간주하는 增益邊과 자아가 없다[無]고 간주하는 損減邊의 양면을 벗어나는 것이다. 가령 ‘복덕은 복덕이 아니다.’는 부분은 증익변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복덕이라 말한다.’는 부분은 손감변을 부정하는 것이다.⁸⁾
- ⑥ 地는 信行地와 淨心地와 如來地의 3종이 있다. 이 가운데 행소주처의 18종 주처 가운데 하나부터 열여섯까지는 신행지를 현시하고, 열일곱은 정심지를 현시하며, 열여덟은 여래지를 현시한다.⁹⁾
- ⑦ 立名은 金剛能斷을 가리킨다. 금강이란 不可壞한 성품이고, 능단이란 반야 바라밀을 통하여 聞·思·修에 의하여 단제되는 대상이다.¹⁰⁾

결국 무착의 분과는 7종의구인데 그 가운데 ③ 행소주처가 18住로 나뉜 것이다.

2. 천친의 27斷疑

일찍이 天親(316?~396?)은 『금강경』에 대하여 미륵으로부터 80개의 계송을 傳受하였다.¹¹⁾ 무착이 80계송으로 송출했다는 것은 별도로 번역되어 전해지기도 하였다.¹²⁾ 천친은 『금강경』 본문을 단락별로 제시하고 각각 그에 상응하는 계송을 붙이고 자신의 해설을 곁들였다.¹³⁾ 천친의 『논』은 다음과 같이 3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① 菩提流支가 번역한 金剛經 經文.¹⁴⁾

7) 위의 책, (大正藏25, 758下)

8) 위의 책, (大正藏25, 758下-759上)

9) 위의 책, (大正藏25, 759上)

10) 위의 책, (大正藏25, 759上)

11) 『금강경』의 본문에 대한 77개의 계송, 歸敬偈 2계송, 歸結偈 1계송을 합하여 80계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天親, 『金剛般若論』 3卷(大正藏25, 781中-797中)

12) 無著菩薩의 계송만을 따로 번역한 것이 唐 三藏法師 義淨이 번역한 『能斷金剛般若波羅蜜多經論頌』 1권이다(大正藏25, 885上-886下).

13) 이것이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天親, 『金剛般若論』이다.

14) 무착보살은 『금강경』에 대한 『金剛般若論』 2권 혹 3권본을 지으면서 18住位로

② 無著菩薩의 80偈頌.

③ 無著菩薩이 송출한 계송에다 天親論師가 각 계송마다 해설을 붙이면서 27 斷疑로 구분.

보리유지가 번역한 천친의 『금강반야바라밀경론』 3권본에서는 경문의 전체적인 문답으로 수보리의 네 가지 질문이 등장한다.¹⁵⁾ 이들 질문에 대하여 천친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27가지 의문을 제시하고 그 의문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경문을 분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천친의 소위 27斷疑의 분과이다.

- ① 제1단의 : 相에 집착이 없이 보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佛菩提에 보시하면 그것은 불보리라는 상에 집착하는 것이 된다는 의심을 없애준다.
- ② 제2단의 : 相에 집착이 없이 보시하는 것은 因의 深義이고, 佛이 有爲의 체가 아니라는 것은 果의 深義이므로 이로부터는 신심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의심을 없애준다.
- ③ 제3단의 : 佛이 유위상을 떠난 無相이라면 어째서 법을 설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없애준다.
- ④ 제4단의 : 四果는 自果를 취하고 또한 證을 설한 것인데 이 또한 取와 證이라는 의심을 없애준다.
- ⑤ 제5단의 : 석존은 연등불에게서 수기를 받고 연등불은 법을 설했으므로 不可取·不可說이 아난가에 대한 의심을 없애준다.
- ⑥ 제6단의 : 불국토장엄은 불가취에 반대된다는 의심을 없애준다.
- ⑦ 제7단의 : 연은 보신은 집착을 떠난 것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불가취에 반대되는 것이 아난가에 대한 의심을 없애준다.
- ⑧ 제8단의 : 수지하는 것이든지 연설하는 것이든 보살은 고행을 닦기에 苦果를 얻는다는 의심을 없애준다.

과관을 하였으며, 또한 77계송(천친이 붙인 귀경계 2계송, 귀결계 1계송을 합하여 80계송)으로 송출하기도 하였다. 그의 俗弟인 天親菩薩은 無著의 論에 의하여 『金剛般若波羅蜜經論』 3卷을 찬술하면서 27斷疑로 과분하였고, 東晉의 道安은 서분 : 법회인유분 제1, 정중분 : 선현기정분 제2~응화 비진분 제32, 유통분 : 응화비진분 제32로 구분하였으며, 梁 武帝의 장자인 昭明太子는 32分으로 이해하였고, 天台智顓은 12分節로 나누기도 하였다.

15) 첫째는 어떻게 발보리심을 해야 하는가이다[云何發心]. 둘째는 어떻게 본래의 청정심을 유지해야 하는가이다[應云何住]. 셋째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가이다[云何修行]. 넷째는 어떻게 번뇌심을 다스려야 하는가이다[云何降伏心].

- ⑨ 제9단의 : 證道의 과에 언교가 없으면 언교는 證法의 인이 아니라는 의심을 없애준다.
- ⑩ 제10단의 : 진여의 체가 일체시·일체처에 편만하다면 有得·無得의 차별이 없을 것이라는 의심을 없애준다.
- ⑪ 제11단의 : 安住·降伏도 도리어 아상을 남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없애준다.
- ⑫ 제12단의 : 보살이 아니라면 석존은 연등불에게서 무엇 때문에 보살행을 수업했는가의 의심을 없애준다.
- ⑬ 제13단의 : 보리가 없다면 불법도 없어야 할 것이라는 의심을 없애준다.
- ⑭ 제14단의 : 보살이 아니라면 佛道도 없고, 중생도 열반에 들어갈 수 없으며, 국토장엄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보살은 왜 발심하여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없애준다.
- ⑮ 제15단의 : 보살과 중생이 제법무아를 터득하면 성인이 아니어도 모두 보살이라 이름 한다. 그런데 제불은 제법을 보지 앓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없애준다.
- ⑯ 제16단의 : 住心이 顛倒라면 복덕도 또한 전도이다. 그러면 무엇을 善法이라 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없애준다.
- ⑰ 제17단의 : 제불은 무위법을 통하여 이름을 얻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제불은 32상과 80종호가 있어 佛이라 말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없애준다.
- ⑱ 제18단의 : 불을 색신의 성취로 볼 수도 없고, 또한 제상의 성취로도 볼 수가 없다면 불은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없애준다.
- ⑲ 제19단의 : 여래가 非衆生이라 설하는 것은 범부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라 설하며, 성인도 중생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중생이라고 설한다. 그런데 佛이 無上菩提로서 얻어야 할 것이 없다면 어째서 수·증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없애준다.
- ⑳ 제20단의 : 선법을 닦음으로써 불을 얻는다는데, 불이 설한 법은 무기법으로 보리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심을 없애준다.
- ㉑ 제21단의 :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라면 불이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없애준다.
- ㉒ 제22단의 : 여래를 색신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법신을 체로 삼는다

해도 그것이 성·색을 떠나지 않은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심을 없애준다.

- ㉓ 제23단의 : 복덕에 의하여 보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보살은 복덕업을 잃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없애준다.
- ㉔ 제24단의 : 보살이 이 과보를 받지 않는다면 중생은 어떻게 하여 그 복덕을 알고 受用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없애준다.
- ㉕ 제25단의 : 범신은 거래가 없고 화신은 거래가 있다면 一·異의 見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없애준다.
- ㉖ 제26단의 : 화신불의 설법에는 복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없애준다.
- ㉗ 제27단의 : 불이 항상 세간에 주하여 설법한다면 어찌서 열반에 들어간다고 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없애준다.¹⁶⁾

3. 금강선의 12분과

『金剛仙論』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金剛仙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天親의 제자라는 사실 이외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¹⁷⁾ 그리고 『금강선론』의 번역자 菩提留支¹⁸⁾는 북인도 사람이다.¹⁹⁾ 금강선의 생존 시기에 대하여 『금강선론』에는 天親으로부터 200년²⁰⁾ 후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금강선론』에 의하면 금강선의 계보는 天親 - 金剛仙 - 無盡意 - 聖濟 - 菩提留支로 계승되었다.²¹⁾ 『금강선론』은 천친의 『논』에다 금강선이 그 경문과 논문에 다시 자세한 주석을 가하여 10권으로 만든 것이다.

16) 김호귀, 『금강경과해』, 한국학술정보, 2011, pp.28-31.

17) 平川彰, 『インド仏教史』 卷下, 春秋社, 1979, p.101 이하.

18) 菩提留支 또는 菩提留支라 음역하고, 道希·覺喜·覺愛 등으로 의역된다. 보리유지에 대한 행적은 楊銜之의 『洛陽伽藍記』, 費長房의 『歷代三寶紀』, 道宣의 『大唐內典錄』·『續高僧傳』·『集古今佛道論衡』, 智昇의 『開元釋教錄』 등에 전한다.

19) 『續高僧傳』 卷1(大正藏50, 428上), “菩提留支 魏言道希 北天竺人也”

20) 『金剛仙論』 卷10(大正藏25, 874下), “迭相傳授 以至於今 始二百年許 未曾斷絕”

21) 『金剛仙論』 卷10(大正藏25, 874下), “論主天親既從無障礙比丘邊學得 復尋此經論之意 更作偈論 廣興疑問 以釋此經 凡有八十偈 及作長行論釋 復以此論 轉教金剛仙論師等 此金剛仙 轉教無盡意 無盡意復轉教聖濟 聖濟轉教菩提留支 迭相傳授 以至於今 始二百年許 未曾斷絕故 言及廣說也”

그런데 금강선은 경문과 계송과 논문에 대한 주석은 철저하게 천친의 『논』²²⁾의 구성에 근거하면서도, 다시 독자적으로 ① 序分 ② 善護念分 ③ 住分 ④ 如實修行分 ⑤ 如來非有爲相分 ⑥ 我空法空分 ⑦ 具足功德按量分 ⑧ 一切衆生有眞如佛性分 ⑨ 利益分 ⑩ 斷疑分 ⑪ 不住道分 ⑫ 流通分으로 분과하고 있다.

- ① 序分은 경문의 通序 곧 證信序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소명태자의 32분과로 보면 제1법회인유분에 해당한다.²³⁾
- ② 善護念分은 서분의 別序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32분과의 제2선현기청분의 전반부에 해당한다.²⁴⁾
- ③ 住分은 32분과의 제2선현기청분의 후반부 및 제3대승정중분에 해당한다.²⁵⁾
- ④ 如實修行分은 32분과의 제4묘행무주분에 해당한다.²⁶⁾
- ⑤ 如來非有爲相分은 32분과의 제5여리실견분에 해당한다.²⁷⁾
- ⑥ 我空法空分은 32분과의 제6정신회유분 및 제7무득무설분에 해당한다.²⁸⁾
- ⑦ 具足功德按量分은 32분과의 제8의범출생분부터 제14이상적멸분의 전반부에 해당한다.²⁹⁾
- ⑧ 一切衆生有眞如佛性分은 32분과의 제14이상적멸분 후반부부터 제15지경공덕분 전반부에 해당한다.³⁰⁾
- ⑨ 利益分은 32분과의 제15지경공덕분 後半部부터 제16능정업장분에 해당한다.³¹⁾

22) 천친은 『금강만야론』에서 『금강경』의 내용을 27斷疑로 파악하였다. 참고, 「天親『金剛般若波羅蜜經論』의 四種心考」, 『韓國佛敎學』 제30집, 한국불교학회, 2001년 12월.

23) 금강선은 天親의 논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해설을 가하였기 때문에 『금강선론』의 분과 범위는 이하 天親의 『金剛般若論』의 범위에 의거한다. 天親, 『金剛般若論』 卷上(大正藏25, 781中)

24) 天親, 『金剛般若論』 卷上(大正藏25, 781中)

25) 위의 책, (大正藏25, 781下)

26) 위의 책, (大正藏25, 782上)

27) 위의 책, (大正藏25, 782下)

28) 위의 책, (大正藏25, 783上-784中)

29) 위의 책, 卷上-卷中(大正藏25, 784下-788下)

30) 위의 책, 卷中(大正藏25, 789上-中)

31) 위의 책, (大正藏25, 789下-790上)

⑩ 斷疑分은 32분과의 제17구경무아분부터 제31지견불생분에 해당한다.³²⁾

⑪ 不住道分은 32분과의 제32응화비진분의 전반부에 해당한다.³³⁾

⑫ 流通分은 32분과에서 제32응화비진분의 후반부에 해당한다.³⁴⁾

이처럼 금강선의 『금강선론』은 『금강경』에 대한 復註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곧 『금강경』의 경문에 대하여 천친이 주석한 『금강반야론』에 대하여 다시 그의 제자인 금강선이 『금강반야론』에 대한 주석을 逐字의 형태로 주석을 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금강선은 전체를 독자적으로 12분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의문과 그에 대한 斷疑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천친의 분과에 대한 내용을 답습하고 있으면서 그 내용을 초월하여 형식상의 특징을 가미하여 분과한 것이다.³⁵⁾

III. 중국 및 한국찬술 주석서

隋의 길장(549~613)의 『금강반야소』, 唐의 지엄의 『금강반야바라밀경약소』, 元의 증봉명본의 『금강반야약의』, 明의 종륙·여기의 『금강반야바라밀경주해』, 淸의 손념구의 『금강경회찬』, 기화득통의 『금강반야바라밀경륜관』 등의 주석서를 대상으로 한다.

1. 길장의 3단주설

隋의 길장은 『금강반야소』에서 경문의 玄意를 十重으로 파악하였다. 첫째, 序說經意로서 경전의 뜻을 서설한다. 둘째, 明部儻多少로서 반야의 多少를 설명한다. 셋째, 辨開合으로서 경전의 開合을 辨論한다. 넷째, 明前後로서 『마하반야경』과 『금강반야경』의 전후를 설명한다. 다섯째, 辨經宗으로서 경전의 종지를 판별

32) 위의 책, 卷中-卷下(大正藏25, 790下-796上)

33) 위의 책, 卷下(大正藏25, 796下-797上)

34) 위의 책, (大正藏25, 797上-中), “佛說是經已 長老須菩提 及諸比丘比丘尼 優婆塞 優婆夷 菩薩摩訶薩 一切世間天人 阿修羅乾闥婆等 聞佛所說皆大歡喜信奉奉行”

35) 김호귀, 『금강선론』, 한국학술정보, 2010, pp.762-763.

한다. 여섯째, 辨經題로서 경전의 제목을 판별한다. 일곱째, 明傳譯으로서 경전의 傳譯을 설명한다. 여덟째, 明應驗으로서 경전의 영험을 설명한다. 아홉째, 章段으로서 경전의 章과 段에 대하여 설명한다. 열째, 正辨文으로서 경전의 문장을 정식으로 판별한다.³⁶⁾

이 가운데 아홉째에 해당하는 대목에서 경전의 분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길장은 먼저 당시에 北土에서 보리유지삼장의 번역본을 상송하여 경전 전체를 ① 序分, ② 護念付囑分, ③ 住分, ④ 修行分, ⑤ 法身非有爲分, ⑥ 信者分, ⑦ 格量分, ⑧ 顯性分, ⑨ 利益分, ⑩ 斷疑分, ⑪ 不住道分, ⑫ 流通分の 12분설을 소개하고 있다.³⁷⁾

- ① 대저 성인의 설법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으므로 序分이 있다.
- ② 대승법을 설하는 것은 반드시 제보살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미 대승법을 깨친 자에게는 모름지기 가피를 내려주고, 아직 깨치지 못한 자에게는 이미 깨친 자에게 부촉을 한다. 때문에 둘째로 護念付囑이 있다.
- ③ 이미 호념하고 부촉한 자들로 하여금 반야에 안주케 하기 때문에 셋째로 住分이 있다.
- ④ 반야에 안주했다고 해도 나아가서 제행을 닦아야 하기 때문에 넷째로 修行分이 있다.
- ⑤ 無得의 因을 닦아 無爲의 과보를 얻기 때문에 다음으로 法身非有爲分을 설명한다.
- ⑥ 인과를 설하면 반드시 그것을 信受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信者分을 설명한다.
- ⑦ 믿을 지니면 공덕이 끝이 없기 때문에 모름지기 格量分을 설명한다.
- ⑧ 설법을 수지하는 자는 공덕이 끝이 없으므로 반드시 불성을 由致한다. 만약 불성을 모른다면 공덕이 없기 때문에 顯性分이 있다.
- ⑨ 불성에 의지하여 수행하므로 그 공덕과 이익이 무궁하기 때문에 利益分을 설명한다.
- ⑩ 지금까지는 第一周 설법으로서 상근기는 이미 깨쳤지만 중하근기는 깨치

36) 吉藏 撰, 『金剛般若疏』卷1(大正藏33, 84中), “玄意十重。一序說經意。二明部儻多少。三辨開合。四明前後。五辨經宗。六辨經題。七明傳譯。八明應驗。九章段十正辨文”

37) 김호귀, 『금강반야경소』, 석란, 2005, p.7.

지 못하고 다시 의심을 내기 때문에 열 번째로 斷疑分이 있다.

- ⑩ 의심이 제거되면 依住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열한 번째로 不住道分이 있다.
- ⑪ 대승법은 현재의 이익에만 그치지 않고 미래까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열두 번째로 流通分이 있다.³⁸⁾

그리고 길장은 이들 12분설의 오류를 지적하여 “이처럼 비록 12분하였으나 이것은 모두 인과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始末을 통합해보면 무릇 四周가 된다.”³⁹⁾고 판단하고 四周說을 내세운다.

- ① 제2 護念付囑分부터 제4 修行分까지는 因을 설명하고, 제5 法身非有爲分은 果의 이익을 관별한다. 이것이 곧 第一周 인과에 대한 설명이다.
- ② 다음으로 제6 信者分과 제7 格量分은 因이 되고, 제8 顯性分은 顯性을 感得하는 果이다. 이것이 곧 다음 第二周 인과에 대한 설명이다.
- ③ 이미 불성을 터득하고 난 이후 그 불성에 의한 수행은 곧 因의 뜻이고, 그 因이 있기 때문에 果를 얻게 되므로 제9 利益分이다. 이른바 第三周 인과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제10 斷疑分은 因이 되고, 제11 不住道分은 그 果이다. 이것이 곧 第四周 인과에 대한 설명이다.⁴⁰⁾

이로써 길장은 『金剛般若疏』에서 三段二周說의 과분을 채택하였다. 길장이 제시한 3단설은 기존의 서분·정중분·유통분의 형식을 계승하면서 약간 수정을 가하였다. 서분의 경우는 通序와 別序, 證信序와 發起序, 遺教序와 現前序, 經前序와 經後序로 나누었다. 정중분의 경우는 一周廣說과 二周略說로 구분하였다. 유통분의 경우는 佛이 說經을 마치는 것과 時衆이 歡喜奉行하는 것으로 각각 둘로 구분하였다.⁴¹⁾ 이것을 정리하면 길장의 삼단설 구성은 다음과 같다.

38) 『金剛般若疏』卷1(大正藏33, 90下)

39) 위의 책, (大正藏33, 91上), “然分雖十二不出因果。統其始末凡有四周”

40) 위의 책, (大正藏33, 91上), “護念付囑至修行分此則明因。法身非有爲分斯則辨果益。是一周明因果也。次從信者分至于格量此則爲因感得顯性之果。此則次周明因果也。既明佛性。依性之修行即因義。有因故得果。即利益分。謂三周明因果也。斷疑爲因。不住道爲果。則四周明因果也”

41) 나아가서 二周說法の 분과에 대해서는 곧 前周에서는 實慧를 설명하고, 後周에서는 善巧方便(善權)을 관별하고 있다. 더불어 四周因果로 기존의 12분설을 비판하

제일단 : 서설

- ① 通序, 別序 ② 證信序, 發起序 ③ 遺教序, 現前序 ④ 經前序와 經後序

제이단 : 정설

- ① 一周廣說 ② 二周略說

제삼단 : 유통설

- ① 佛의 說經을 마침 ② 時衆의 歡喜奉行

2. 지엄의 3단분과

또한 唐의 智儼(602~668)은 『금강반야바라밀경약소』에서 菩提流支 번역본에 의하여 ① 明教興所由, ② 明藏攝分齊, ③ 明所詮宗趣及詮教體, ④ 釋經題目, ⑤ 分文解釋 등 五門分別을 지어 ⑤의 分文解釋에 대하여 경문을 序分·正宗分·流通分の 셋으로 나누었다.⁴²⁾

우선 序分에 대해서는 證信序·發起序, 그리고 正宗分은 立義分·解釋分·究竟分, 그리고 流通分으로 분과한다. 序分 가운데 증신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六成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⁴³⁾ 그리고 발기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보리의 총론적인 질문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한편 정중분의 경문에 대하여 지엄은 크게 입의분·해석분·구경분의 셋으로 구분한 점이 특이하다. 입의분은 수보리의 물음에 대하여 칭찬하고 잘 들어보라고 대중을 경계시키는 부분에 해당한다.⁴⁴⁾ 둘째의 해석분은 본문의 대부분이 이

였다. 김호귀, 「길장의 『금강경』 분과에 대한 고찰」, 『佛敎學報』 42집, 불교문화연구원, 2004.

42) 智儼 述, 『金剛般若波羅蜜經略疏』 卷上(大正藏33, 239上), “將欲釋文先於文首作五門分別。一明教興所由。二明藏攝分齊。三明教下所詮宗趣及能詮教體。四釋經題目。五分文解釋” 한편 같은 唐代的 窺基는 『金剛般若經贊述』에서 경문을 三分하였다. ① “如是我聞”부터 “敷座而坐”까지를 由致分으로 삼고, ② “時長老須菩提卽從坐起” 이하 “應作如是觀”까지를 發請廣說分으로 삼았으며, ③ “佛說是經已” 이하 “信受奉行”까지를 喜悟修行分으로 삼았다. 窺基는 천진의 『논』에 의거하여 분과하였다. 窺基, 『金剛般若經贊述』 卷上(大正藏33, 126上) 그러면서도 규기는 경문의 전체를 삼단구성으로 파악하여, 由致分(통유치와 별유치)·正說分(初周說法과 後周說法)·流通分(喜悟修行分)으로 이해하였다. 김호귀, 『금강경찬술』, 중도, 2007. pp.1-2.

43) 智儼 述, 『佛說金剛般若波羅蜜經略疏』 卷上(大正藏33, 239下)

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종분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구경분은 경문의 전체 내용을 결론짓는 대목이다.⁴⁵⁾

그리고 유통분은 수보리·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보살마하살·천·인·아수라·건달바의 10대중을 열거하고 각자 그들이 얻은 이익의 모습을 설명한 부분으로서 마지막 대목에 해당한다.⁴⁶⁾

이로써 지엄 분과의 특징은 두 가지 점이 엇보인다.

첫째, 형식으로는 전통적인 3단 분과에 근거하여 서분·정종분·유통분으로 나누었다. 정종분은 다시 입의분·해석분·구경분의 셋으로 나누고, 다시 해석분의 경우 둘로 나누었다.

둘째, 내용으로는 所詮과 能詮의 입장에서 설명하였는데 所詮의 宗趣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곧 하나는 敎와 義의 상대, 둘은 因과 果의 상대, 셋은 人과 法의 상대, 넷은 理와 事의 상대, 다섯은 境과 行의 상대이다. 나아가서 能詮의 敎體에 대해서는 일승의 입장에서는 유식의 진어를 敎體로 삼고, 삼승의 입장에서는 소승교와 일승교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⁴⁷⁾

3. 중봉명본의 32분과 명칭 해석

元の 中峰明本(1263~1323)의 『어록』 30권 가운데 제15권에 『금강반야약의』⁴⁸⁾가 있다. 『금강경』의 제명을 비롯하여 ‘不住色布施’, ‘四句偈’, ‘四相과 四見’, ‘卽非是名’, ‘五語’, ‘三千大千世界’, ‘三日分’, ‘三際心不可得’, ‘五眼’ 등 주요한 대목 및 중요한 개념에 대하여 그 대의를 피력하고, 32분과의 명칭에 대하여 해당하는 경문을 배대하면서 의미를 설명한다. 전체적인 구성은 (1) 序文, (2) 중요한 개념 해설, (3) 경문의 분과, (4) 32분과에 대한 의미 해설, (5) 발문 등 다섯 대목으로 나뉜다.

우선 중봉은 『금강반야약의』를 저술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연우 병진년

44) 위의 책, (大正藏33, 240中)

45) 위의 책, 卷下(大正藏33, .250下-251上)

46) 위의 책, (大正藏33, 251上)

47) 김호귀, 『금강경약소』, 한국학술정보, 2010, pp.214-215.

48) 中峰明本 著, 『天目中峰廣錄』 卷15(大藏經補編25, 864中-873上)

(1316) 7월에 翰林承旨 趙公이 경사에서 편지를 보내와 『금강반야경』의 대의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그에 대하여 『금강반야경약의』를 서술하고 아울러 그 편지에 답변을 하였다.”⁴⁹⁾고 말한다. 이 어록에서 중봉이 경전의 분과에 대하여 언급한 대목은 후반부에 해당한다.⁵⁰⁾ 중봉은 32분과를 중심으로 하여 분과의 명칭에 대한 연유를 설명한다.

- ① 범회인유분 : “여시아문’부터 ‘부좌이좌’에 이르기까지는 이에 序로서, 설법할 때 會衆의 처소이기 때문에 ‘범회인유’라고 부른다.”
- ② 선현기정분 : 수보리가 찬탄하는 말을 하고 질문하자, 부처님이 모두 응대 해주겠다는 말을 허가해준 까닭에 ‘선현기정’이라고 말한다.
- ③ 대승정중분 : 云何降伏其心の 경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 ④ 묘행무주분 : ‘云何應住<應云何住>’의 질문에 답변하는데, 無住로 住하는 공덕이야말로 비록 시방허공의 크기로는 비량할 수가 없는 까닭에 ‘묘행무주’라고 부른다.
- ⑤ 여러실견분 : 相에 집착하고 見에 막히는 허망의 情翳은 반드시 그 如理性을 말미암아야 實見하는 것이다.
- ⑥ 정신회유분 : 반야를 믿는 마음을 이에 正信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신 가운데서 얻는 복덕은 무량하다.
- ⑦ 무득무설분 :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대하여 확정된 법으로 얻은 것이 없고 또한 확정된 법으로 설한 것이 없다.
- ⑧ 의법출생분 : 반야의 장구를 일구로부터 무수구 등에 이르기까지 수지하면 제불 및 제불의 아녹다라삼막삼보리도 출생하는 까닭에 ‘의법출생’이라고 말한 것이다.
- ⑨ 일상무상분 : 소득에 막히면 또한 사상의 얽매임을 벗어나지 못한다.
- ⑩ 장엄정도분 : 여래는 소주심을 발생하지 않는데, 무소주인 즉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대해서도 유소득이라고 보지 않고, 불국토에 대해서도 유소장엄이라고 보지 않는다.

49) 위의 책, (大藏經補編25, 864中), “延祐丙辰秋七月翰林承旨趙公自京師遣書來問金剛般若大意遂述略義併答其書略曰聞如”

50) 위의 책, (大藏經補編25, 868中-872中)

- ⑪ 무위복승분 : 칠보의 보시로는 其生心住相을 벗어날 수가 없지만 반야를 수지하는 사람은 心에 소생이 없고 相에 소주가 없기 때문에 '무위복승'이라고 말한다.
- ⑫ 존중정교분 : 반야장구를 조금이라도 능설한다면 곧 천·인의 존경을 받고 수지하면 제일·회유하기 때문에 존중정교라는 명칭을 얻는다.
- ⑬ 여법수지분 : 卽非는 이에 흔적을 없애는 말씀이고, 是名은 이에 本具의 뜻이다.
- ⑭ 이상적멸분 : 반야를 수지하는 까닭에 제상을 벗어나는 까닭에 '離相寂滅'이라고 말한다.
- ⑮ 지경공덕분 : 반야장구를 능수지한 즉 곧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감당한다.
- ⑯ 능정업장분 : 후말세에 반야장구를 약간만 수지한 복은 대단하다.
- ⑰ 구경무아분 : 보살이 무아법에 통달한 자라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기 때문에 제목을 '구경무아'라고 말한다.
- ⑱ 일체동관분 : 모든 중생의 약간중심을 여래는 다 안다는 것은 三心과 같아서 불가득이다.
- ⑲ 법계통화분 : 보시의 인연으로 얻은 복덕은 모두 허망하고 그 결과는 진실이 아니다.
- ⑳ 이색이상분 : 수보리가 空義를 알고서 모두 볼 수가 없다고 말하자, 세존이 그것을 인정한다.
- ㉑ 비설소설분 : 반야를 이해하기 때문에 卽非衆生이고, 반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是名衆生이다.
- ㉒ 무법가득분 : 수보리의 無法可得之間에 대하여 인가한다.
- ㉓ 정심행선분 : 반야에 의거하여 수행한 所作은 모두 선법이라고 말한다.
- ㉔ 복지무비분 : 반야를 수지한 공덕은 칠보의 보시보다 뛰어나다.
- ㉕ 화무소화분 : 반야를 수지한다는 것이 곧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반야지가 원만한 즉 중생견이 다하는 것이 是名度衆生이다.
- ㉖ 범신비상분 : 색상으로 보고 음성으로 추구한 즉 法身非相이라는 뜻에서 동떨어지고 만다.
- ㉗ 무단무멸분 : 무단·무멸의 至理를 깨치지 못하여 有라고 말한 즉 상견에 떨어지고, 無라고 말한 즉 단견에 떨어진다. 이것은 모두 반야의 중도를

상실한 것이다.

- ㉔ 불수불담분 : 반야를 수지하기 때문에 곧 일체법이 무아임을 알아 무생법인을 성취한다.
- ㉕ 위외적정분 : 반야지의 體와 시방의 허공은 담연하고 상적하지만 제상을 거부하지 않고 상적의 체 가운데서 去·來·動·靜한다.
- ㉖ 일합이상분 : ‘미진세계는 이에 事相이고, 미진세계를 能受하는 사람은 이에 理性이다.
- ㉗ 지견불생분 :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반드시 여시하게 제법은 無相인 줄 알고, 반드시 여시하게 제법은 無相인 줄 보며, 반드시 제법은 여시하게 無相인 줄 信解하면 자연히 아·인·중생·수자 가운데서 지견을 일으키지 않는다.
- ㉘ 응화비진분 : 相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곧 연설이라고 말하고, 如如不動을 곧 연설이라 말한다. 一切相과 一切見과 一切取捨와 一切言說과 一切學解 등이 모두 사유를 일으키는 법이고 유위법인데 그것은 마치 夢·幻·泡·影·露·電과 같다.

이처럼 32분과의 명칭에 상응하는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4. 종륙·여기의 27단의

명의 天界善世禪寺 住持 宗泐(1317~1391)과 演福講寺 住持 如玘(1320~1385)가 함께 황제의 명을 받아서 편찬한 『금강반야바라밀경주해』⁵¹⁾는 구마라집 번역본에 의거하고 있는데, 소명태자가 부여한 32분과의 형식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전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경전 본문에 충실하여 二周分科의 형식은 철저히 답습하고 있다. 아울러 경문 전체의 대의를 네 가지로 정의하였다. 첫째는 實相을 本體로 삼고 無住로 宗旨를 삼으며 斷疑로 作用으로 삼고 大乘을 敎相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견해는 기존에 無念을 宗旨로 삼고 無相을 본체로 삼으며 無住를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과는 약간의 변화를 보인다. 이하에서는 27단의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²⁾

51) 宗泐·如玘 同註, 『金剛般若波羅蜜經註解』(大正藏33, 228上-238下) 참조.

- ① 제1단의 : 佛을 추구하여 보시하는 것은 상에 住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풀어준다. 곧 相에 住함이 없이 보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佛菩提에 보시하면 相에 住하는 것이 된다는 의심을 斷한다. 이 의심은 앞의 경문인 不住相布施에서 유래된 것이다.
- ② 제2단의 : 因과 果가 모두 깊으면 信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풀어준다.
- ③ 제3단의 : 無相이라면 어떻게 설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을 풀어주는 것이다.
- ④ 제4단의 : 성문이 果를 얻은 것은 取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풀어준다.
- ⑤ 제5단의 : 석가모니불께서 연등불 세상에서 취한 설법이 있는가 하는 의심을 풀어준다.
- ⑥ 제6단의 : 국토를 장엄했다는 것은 不取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풀어준다.
- ⑦ 제7단의 : 보신을 얻은 것은 取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풀어준다.
- ⑧ 제8단의 : 수지하고 연설하는 것으로는 고뇌의 과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풀어준다.
- ⑨ 제9단의 : 能證에 언교의 體가 없으면 證의 因이 되지 않는다는 의심을 풀어준다.
- ⑩ 제10단의 : 진여는 有得인가 無得인가에 대한 의심을 풀어준다.
- ⑪ 제11단의 : 안주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我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의심을 풀어준다.⁵³⁾
- ⑫ 제12단의 : 부처님의 因行時節은 보살이라는 相이 남아 있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풀어준다.
- ⑬ 제13단의 : 因이 없으면 불법도 없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풀어준다.
- ⑭ 제14단의 : 보살이 없다면 중생제도와 국토장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심을 풀어준다.
- ⑮ 제15단의 : 그렇다면 제불은 제법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의심을 풀어준다.

52) 위의 책, (大正藏33, 229下-238中)

53) 정중분을 二周說法으로 구분하면 여기서부터 제2주설법에 해당된다.

- ⑯ 제16단의 : 복덕의 예는 마음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풀어준다.
- ⑰ 제17단의 : 無爲라면 어찌하여 상호가 있는가 하는 의심을 풀어준다.
- ⑱ 제18단의 : 身이 없다면 어떻게 법을 설하는가 하는 의심을 풀어준다.
- ⑲ 제19단의 : 無法이라면 어떻게 修證이 가능한가 하는 의심을 풀어준다.
- ⑳ 제20단의 : 설법한 바가 無記라면 그것은 因이 될 수 없다는 의심을 풀어준다.
- ㉑ 제21단疑 : 평등하다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심을 풀어준다.
- ㉒ 제22단의 : 상을 통하여 眞佛을 헤아려 알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을 풀어준다.
- ㉓ 제23단의 : 佛果가 복덕상과 무관한가 하는 의심을 풀어준다.
- ㉔ 제24단의 :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으면 화신이 복덕을 받는가 하는 의심을 풀어준다.
- ㉕ 제25단의 : 법신과 화신의 같고 다름에 대한 의심을 풀어준다.
- ㉖ 제26단의 : 화신불의 설법은 복덕이 없는가 하는 의심을 풀어준다.
- ㉗ 제27단의 : 여래가 입적했다면서 어떻게 설법을 하는가 하는 의심을 풀어준다.

이 분과는 친친의 『금강반야론』을 중시한 결과 전체적인 내용을 아예 친친의 분과인 27斷疑에 맞추어 전개시켰다는 점이다. 이것은 문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는 27斷疑의 간단명료한 내용을 그 구성형식으로 삼은 결과였다.⁵⁴⁾

5. 왕화룡의 32분과 명칭

孫念劬(칭 건릉제 무렵)은 『금강경』에 대하여 기존의 수많은 주석서를 편찬하여 『金剛經彙纂』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가운데는 明의 王化隆(明代 儒士)이 붙인 『金剛經三十二分總提』⁵⁵⁾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범회인유분 : 무릇 ‘凡所有相 皆是虛妄’이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有이지만 非有이고 空이지만 不空임을 깨치면 비로소 그것이 本來眞性이므로 비로

54) 김호귀, 『금강경주해』, 석란, 2007, p.6.

55) 孫念劬 纂, 『金剛經彙纂』 卷上(卍新續藏25, 756中-下)

소 이에 수많은 제자를 모아놓고 설법한 것이다.

- ② 선현기청분 : 그래서 수보리는 단적으로 다음과 같이 一問하였다. ‘이 보리심에는 어떻게 주해야 하고, 망심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 ③ 대승정중분 : 부처님이 말했다. 태·난·습·화·有色·有想·非色·非有想 등은 모두 중생의 망심이 結縛됨으로써 초래된 것이다. 만약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의 사상이 없으면 이에 대승정중의 教이다.
- ④ 묘행무주분 : 때문에 무릇 보시의 경우라고 해도 그 相에 집착[住]해서는 안 된다.
- ⑤ 여러실견분 : 그것은 허망하여 부실이므로 반드시 상을 비상이라고 본즉 마음을 비춤 열어서 부처를 본다.
- ⑥ 정신회유분 : 이것이야말로 그 이치가 최고로 마땅한데 그것을 독신하여 얻은 사람이 많지 않다.
- ⑦ 무득무설분 : 모두가 그대로 본유의 자성이므로 自悟하고 自修해야 하거늘 어찌 언설에 의거하겠는가.
- ⑧ 의법출생분 : 그래서 이야말로 제불이 모두 이 경전으로부터 유출되었고,
- ⑨ 일상무상분 : 사과도 모두 이 이치로부터 印證된 것이다.
- ⑩ 장엄정토분 : 마음이 청정함을 깨쳐야 비로소 장엄이다.
- ⑪ 무위복승분 : 우리 자신의 마음은 무위가 되어야 비로소 복덕이라고 일컫는다.
- ⑫ 존중정교분 : 이에 최상의 법이고 제일의 법이므로 반드시 그것을 尊하고 重해야 한다.
- ⑬ 여법수지분 : 또한 반드시 그것을 受하고 持해야 한다.
- ⑭ 이상적멸분 : 일체의 제상을 벗어난즉 적멸이 현전한다.
- ⑮ 지경공덕분 : 그리고 誦·讀·演說한즉 공덕이 무량하다.
- ⑯ 능정업장분 : 무릇 업장이 있더라도 모두가 다 청정해지고,
- ⑰ 구경무아분 : 구경에 장차 菩薩의 無我法이라고 말한다.
- ⑱ 일체동관분 : 왜냐하면 무릇 과거심·현재심·미래심은 본래 무가득을 말미암기 때문에
- ⑲ 법계통화분 : 허명하고 담적하며 혼연하여 일법계이다.
- ⑳ 이색이상분 : 삼세심이 이미 소멸된즉 색상을 모두 여의고,

- ㉑ 비설소설분 : 언설이 모두 없어졌는데,
 ㉒ 무법가득분 : 또한 어찌 일법인들 얻을 수 있겠는가.
 ㉓ 정심행선분 : 무릇 반드시 평등성을 깨치게 되면,
 ㉔ 복지무비 : 보시가 미묘하여 지혜와 복덕분,
 ㉕ 화무소화분 : 그리고 범부와 성인이 호응한데 어찌 가히 제도할 중생이 남아있겠고,
 ㉖ 법신비상분 : 가히 형상으로 추구할 여래가 있는 줄 알겠는가.
 ㉗ 무단무멸분 : 그런데 無相인즉 완공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한다. 이런 까닭에 법에 대하여 단멸상을 설해서는 안 된다.
 ㉘ 불수불담분 : 묘답하고 원통하므로 혹시 보시한다고 해도 그것은 마음에 탐욕이 있어서 받는 것은 아니다.
 ㉙ 위외적정분 : 혹시 감응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치에 거레가 있는 것은 아니다.
 ㉚ 일합이상분 : 그런즉 理가 서로 합치하고 표리가 兼該하여,
 ㉛ 지견불생분 : 망견이 다 녹아버린다.
 ㉜ 응화비진분 : 그러므로 이 경전을 사람들에게 독·송·연설토록 하려면 다만 일개 진공본성이 되어 무릇 응용해서 감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찌 일찍이 진실인들 있겠는가.

이들 32분과의 명칭에 대하여 왕화룡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相에 집착하지 말고 여여부동해야 한다. 이 말이야말로 쫓이고 쫓이다. 그리하여 직하에서 이해한다면 한글자도 오히려 없거늘 어찌 32분을 활용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을 건너려면 뗏목이 필요하고 바다를 건너려면 반드시 배가 필요하다. 이에 이 『금강경』을 모두 반드시 奉持하라. 그러면 幸諦⁵⁶⁾가 그 삶을 보살펴줄 것이다.”⁵⁷⁾고 말한다. 이 「금강경삼십이분총제」에는 32분과의 각각에 대한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분과의 명칭을 해석한 것인데, 각각의 명칭에는 일련적으로 상관관계가 잘 드러나 있다.

56) 幸諦는 十羅刹女 가운데 華諦女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 本地는 문수보살이다.

57) 孫念叻 纂, 『金剛經彙纂』 卷上(己新續藏25, 756下), “一言以蔽之曰。不取於相。如如不動。斯言至矣盡矣。能直下承當。一字尚無。何用三十二分。不然渡河藉筏。過海須船。此經皆當奉持。幸諦觀之”

6. 함허득통의 3단10분과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운관』⁵⁸⁾은 涵虛堂 得通己和(1376~1433)가 『금강경』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설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금강경오가해』에서 여러 선인들의 견해를 열거하고 배열한 것과는 달리 함허가 여기에서는 『금강경』의 분과를 형식상으로는 10문으로 나누고 내용적으로는 상근기와 중근기와 하근기에 따른 것으로 정리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금강경』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1) 次第開示(上根機)

함허는 『금강반야바라밀경운관』에서는 우선 경문에 드러나 있는 반복된 문답에 대하여 열다섯 가지의 질문을 제기한다.⁵⁹⁾ 그리고 함허는 총론적으로 “나 함허는 이 금강경을 펼쳐보고 완미한 지가 몇 해가 되었다. 근래에는 27단의 이외에도 전후의 글이 각각 부류에 따라 상응해 있고 서로 드러내주면서 뒤섞여 있는 줄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그때가 의심을 보였으므로 내가 이제 그에 대하여 말해보겠다.”⁶⁰⁾고 말한다. 이로써 보면 함허는 중밀이 긍정한 친친의 27단의 분과에 대한 견해⁶¹⁾에 동조하면서 무착론의 18분과까지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용에 따른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와는 달리 함허는 여기에서 내용과 형식의 둘을 아울러 취급하여 3종근기 10문으로 분과하고 있다. 이에 함허는 次第開示와 累累而法이라는 두 가지 형식을 바탕으로 하여 3종근기의 내용으로 분과하고 있다. 이를테면 차제개시는 상근기를 위하여 설한 것으로 서분과 정중분과 유통분을 10門으로 차례에 따라 개시한 것이다.

58) 『한국불교전서』 제7책의 수록본에 의함.

59) 그러나 질문 ⑧부터 질문 ⑮까지 여덟 가지 질문은 모두 반복문답에 대한 질문이므로 크게 묶어서 하나의 질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질문은 모두 아홉 개로 볼 수 있다.

60) 己和 述, 『金剛般若波羅蜜經論貫』(韓佛全7, 116下-117上), “余稟受此經展玩披味亦有年矣 近於二十七疑外 自見前後文義 各以類應甄明喜雜 君既呈疑 請嘗言之”

61) 宗密 述, 子璿 治定, 『金剛般若經疏論纂要』(大正藏33, 154下)

2) 累累而法(中·下根機)

위에서 정중분을 분과하여 상근기를 위한 8문으로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상근기가 아닌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여 다시 설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累累而說이 등장한다. 이미 상근기를 위한 설법 이후에 해당하므로 累累而說이라 한다.

함허는 이처럼 3종의 근기에 대하여 각각 정중분의 8문을 통하여 次第開示와 累累說法을 바탕으로 삼아 次第開示는 상근기를 상대하는 설법의 분과로 배대하였고, 累累說法은 중근기와 하근기를 위하여 거듭 설법했다는 것으로 배대하였다. 이와 같은 분과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⁶²⁾

서분 : 여시아문 ... 천이백오십인구			
정중분 : 이시 세존착의지발 ... 응작여시관			
八 門 의 次 第	상근기(차제개시)	중근기(누누설법)	하근기(누누설법)
	① 依理起信門	① 依理起信門	① 依理起信門
	② 依悟起修門	② 依悟起修門	② 依悟起修門
	③ 成行就果門	③ 成行就果門	③ 成行就果門
	④ 因果圓融門	④ 因果圓融門	④ 因果圓融門
	⑤ 法通未來門	⑤ 依理拂迹門	생략
	⑥ 依理拂迹門	⑥ 法通未來門	⑤ 依理拂迹門
	⑦ 現勝勸持門	⑦ 現勝勸持門	⑥ 現勝勸持門
	⑧ 還示拂迹門	생략	⑦ 還示拂迹門
유통분 : 佛說是經已 ... 信受奉行			

이처럼 함허는 『금강경』에 대한 기존의 분과와는 사뭇 다른 입장에서 분과를 시도하였다. 곧 경문의 형식에 따라서는 서분과 정중분과 유통분이라는 전통의 3단구성에 근거하면서도, 내용면에 나아가서는 정중분을 8문으로 나누어 각각의 門에 차례를 부여하였다. 곧 정중분 가운데서 상근기를 위한 8문은 첫째는 依理起信門(亦名開示悟入門)이고, 둘째는 依悟起修門이며, 셋째는 成行就果門이고, 넷째는 因果圓融門이며, 다섯째는 法通未來門이고, 여섯째는 依理拂迹門이며, 일곱

62) 김호귀, 『정토혹문』, 하얀연꽃, 2015, p.270.

제는 現勝勸持門이고, 여덟제는 還示拂迹門이다.

이것은 먼저 불법의 도리에 의하여 信을 일으키는 제1문으로부터 시작하여 起修門 → 就果門 → 因果圓融 → 法通未來 → 拂迹 → 現勝 → 還示拂迹 등 수증의 차례가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처음 발심으로부터 수행과 깨침과 증득(성불)이라는 수증의 차례와도 통한다. 그러나 함허는 이와 같은 과정을 부득불 재차 나아가서 재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가 곧 근기의 차이임을 인정한 바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3종의 근기를 일깨우기 위한 이러한 분과는 대승보살이 지녀야 할 마음으로 모든 중생에 대하여 차별없이 대하는 廣大心, 중생을 영원상주의 열반계로 이끌어가는 第一心, 중생을 동체대비심으로 대하는 常心, 중생이라는 분별심이 없어 자기 속에서 따로 중생을 보지 않는 不顛倒心 등의 4중심에도 상통하는 것이었다.⁶³⁾

IV. 용성 주석서의 분과 및 명칭 해석

白龍城(1864~1940)이 번역한 『금강경』은 3종의 번역이 있다.

- ①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 1936년⁶⁴⁾
- ②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1922년⁶⁵⁾
- ③ 『詳譯科解金剛經』 1926년⁶⁶⁾

용성은 이 가운데 ①과 ③을 통해서 『금강경』에 대한 분과와 32분과에 대한 명칭의 해석에 대하여 나름대로 특징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곧 분과로는 『상역과해금강경』(1926)에서 54분과로 보여주었고, 32분과의 명칭의 해석에 대해서는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1936)에서 최초로 한글풀이로 보여주었고 있다.

경전의 분과에 대해서는 위에서 고찰해본 것처럼 무착의 7중의구, 천친의 27단의, 금강선의 12분과, 길장의 3단2주, 지엄의 3단분과, 함허득통의 3단10분과가

63) 김호귀, 「함허의 『금강반야바라밀경윤관』의 분과 고찰」, 『한국선학』 12, 2005, pp.49-50.

64) 『용성대중사총서』 제3권,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pp.251-414.

65) 위의 책, pp.415-506.

66) 위의 책, pp.507-581. 백용성은 기타 『금강경』과 관련하여 경전의 전체적인 대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全部大義綸貫』을 저술하였다.

있었고, 기타 분과의 고유한 명칭에 해당하는 27단의 및 32분과에 대한 명칭의 해석으로는 중봉명본의 32분과 명칭 해석, 종록과 여기의 27단의 내용 해석, 王化隆의 32분과 명칭 설명 등이 있었다. 이들 분과 및 명칭의 해석과 비교하여 용성은 분과에 대해서는 『상역과해금강경』를 통해서 54분과로 보여주었고, 32분과의 명칭에 대해서는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를 통해서 각 명칭의 용어에 충실한 한글번역으로 보여주었다.

1. 『상역과해금강경』의 54분과

『詳譯科解金剛經』(1926년)에 보이는 용성의 분과는 먼저 경문의 전체를 前篇 1.~35. 및 後篇 36.~54.의 둘로 나눈다. 용성이 붙인 ‘詳譯科解’라는 말처럼 경문의 분과가 대단히 구체적이다.⁶⁷⁾

순서	분과	순서	분과
	제목을 해석하다	⑱	대각께서 머물러 있는[無住] 이익을 보여주시다
1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물러 설법을 하는 의식	31	비록 머물러 있는 마음은 반야이지만 자기의 지혜로 어떻게 부처님의 지혜[覺智]에 계합하는가를 의심하다
2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물러 계시는 평소의 모습을 보여주다	⑲	대각께서 평등하다고 대답하시다
3	다행스럽게도 수보리가 그 모습을 알아차리다	32	대각께서 거듭 반야를 찬탄하시다
4	바로 여래의 淳淳한 모습을 친견하다	33	대각께서 반야와 법신이 상주함을 보여주시다
5	안심의 방법을 묻다	34	대각께서 반야로 장애와 번뇌를 벗어나는 이익에 대하여 보여주시다
6	잘 두호하여 보살피고 잘 부촉한다	35	대각께서 반야로 찰나에 삼계를 초월

67) 도표에서 보통의 일련번호는 경문에 대한 54단락의 분과를 의미하고, 원안에 표기된 일련번호는 용성이 경문에 대하여 붙인 것으로서 41가지 부연설명에 해당한다. 윤점열, 『용성선사 역해 『금강경』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15.

	는 뜻을 돌이켜서 별도로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다		함을 찬탄하시다
7	무릇 다른 정사가 그 뜻을 모르는 까닭에 거듭 기꺼이 듣고자 한다	㉑	지금까지 전편(前篇)의 내용에 대한 대의를 총괄적으로 논하다
8	안심의 방법을 드러내다(구체적인 뜻은 이하의 경문에 있다)	㉒	이하의 하편에 해당하는데 미세한 이집(二執)의 타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논하다
9	안심하는 관법에 대하여 해석하다	36	대각께서 미세한 아집과 범집을 타과하시다
10	수보리가 중생이 공하다는 말을 듣고서 의심이 일어나다	㉓	이왕 지나간 경문을 거듭 해석한다
①	대각께서 상에 집착하는 의심을 타과하시다	㉔	이후에 등장하는 후반부의 대의를 미리 분석하다
11	만약 상에 머물러 없으면 어떻게 복덕이 있겠는가 하고 의심하다	37	아늑다라삼막삼보리법을 터득한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 깨친 반야가 비법인가 하고 의심하다
②	대각께서 상을 벗어난 묘행을 보여주시다	㉕	대각께서 보리를 터득함이 없음을 보여주시어 깨침[覺]에 대하여 집착하는 의심을 타과하시다
12	결론으로 안심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다	38	인도 없고 과도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다
13	중생이 공하고 삼륜의 체가 적멸함을 듣고서, 그러면 인과(因果)도 허망하게 시설된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다	㉖	대각께서 법신은 인·과에 속하지 않음을 보여주시다
③	대각께서 상이 없는 묘행을 보여주시다	39	무아라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는가를 의심하다
14	무상인으로 무상과에 계합한다는 것을 의심하다	㉗	대각께서 법신이 무아임을 보여서 정사의 미세한 아집과 범집을 타과해주시다
④	대각께서 깨달음의 知見을 보여주시다	40	제도할 중생을 볼 수가 없고 장엄할 정도가 없는데 어찌 오안이 필요하겠는가
15	대각은 색상도 없고 법은 취할 것도 없다는 말을 듣고 대각께서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다	㉘	대각께서 마음과 부처[覺]와 중생의 셋은 차별이 없음을 보여주시다
⑤	대각께서 깨달음과 설법에 대한 지견을 모두 없애주시다	41	중생과 국도가 모두 공하다면 꼭 복덕을 닦을 필요가 있는가를 의심하다

16	깨달음과 설법이 없다는 것은 이해 하였으나 그 복덕이 뛰어나다는 것은 의심하다	㉘	대각께서 無相의 복덕을 보여주시다
⑥	대각께서 無相福德이 최상임을 보여주시다	42	중생과 국토가 모두 공하다는 말을 듣고 여래가 구족한 색상을 의심하다
17	깨달음과 설법은 모두 얻을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 수행[因]을 닦아서 깨침[果]을 터득한다[結]는 것을 의심하다	㉙	대각께서 報身色相의 견해를 타파하시고 법신과 보신이 하나임을 드러내 주시다
⑦	대각께서 머뭇이 없는[無住]의 참된 종지[眞宗]를 보여주시다	43	불신[覺身]은 無相인데 과연 누가 설법을 하는지 의심하다
18	대각께서 깨침의 결과[果]에도 집착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 여래의 수기에 대하여 의심하다	㉚	대각께서 보신불이 설법한다는 의심을 타파해주시다
⑧	대각께서 구경에 얻음이 없다는 뜻을 보여주시다	44	비록 법신은 설법도 없고 현시하지도 않은 줄 알았지만 말세중생이 그것을 믿을 것인가
19	아녹다라삼막삼보리인 부처님[覺]의 깨달음[果]에도 얻을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 불국토[覺土]의 장엄에 대하여 의심하다	㉛	대각께서 중생견을 타파하시다
⑨	대각께서 안심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다	45	법신이 無相한테 어찌 일체의 선법을 닦는다고 말하는지 의심하다
20	불국토[覺土]를 장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千丈大化身이 어디에 머무는지 의심하다	㉜	대각께서 깨침과 설법에 대한 견해의 타파를 보여주시다
⑩	대각께서 법신의 참모습[法身眞相]을 보여주시다	46	선법이 이미 선법이 아니라면 어떤 법이 뛰어난 법인지 의심하다
21	대각께서 비유로써 법보시의 뛰어난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다	㉝	대각께서 상을 벗어난 공덕이 가장 뛰어난 것을 보여주시다
22	수보리가 갖가지 의심을 모두 타파하고 언설을 잊고 이치를 구극하여 마침내 경전의 제명을 청하다	47	이미 중생이 없다면 어찌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하는지 의심하다
⑪	대각께서 반야의 실체를 보여주시다	㉞	대각께서 인상과 아상을 그대로 두고서 법신의 진야를 드러내주시다
23	대각에게 형상이 없다면 누가 설법하는가를 의심하다	48	법신과 보신이 이미 공이면 삼십이상인들 어찌 부처님[覺]이 아니겠는가 하고 의심하다

⑫	대각께서 법신에 형상이 없으므로 그 법에 대해서도 또한 설법이 없음을 보여주시다	㉔	대각께서 응신과 화신은 진신이 아니고 법신은 상이 없음을 보여주시다
24	법신에 형상이 없다고 한다면 곧 단멸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다	49	법신은 無相하다는 말을 듣고 법신이 단멸인지 의심하다
⑬	대각께서는 百尺竿頭에서 다시 한걸음 나아가시다	㉕	대각께서 단멸의 잘못된 知見을 타파하시다
25	수보리는 화신이 과연 진정한 부처님[眞覺]일까 하고 의심하다	50	아도 없고 복도 없으면 威儀動靜이 여래가 아닌지 의심하다
⑭	대각께서 법신과 화신이 동일함을 보여주시다	㉖	대각께서 법신의 진리세계[眞際]로 회귀함을 보여주시다
26	수보리가 묵묵하게 깊이 계합하여 이치로 펼 수도 없고 말로 드러낼 수도 없게 되다	㉗	대각께서 미진과 세계로써 동일하다 다르다는 견해를 타파해주시다
⑮	대각께서 범공의 뛰어난 이익을 나타내 보여주시다	51	법신에게는 일체가 모두 그렇지 않다 [非]면 무엇으로써 사상의 견해[四相見]를 설하는지 의심하다
27	수보리가 깨치고나서 그 심정을 드러내 말씀드리다	㉘	대각께서 법신의 경우 상을 떠나 있다는 견해에 집착하는 것을 타파해주시다
28	수보리가 재물보시[外施]는 잊을 수 있지만 목숨은 버리기 어려우니 어떻게 버릴 것인가를 의심하다	52	법신은 설법을 모르고 화신의 설법은 법신에 통달하지 못한 것인지 의심하다
⑯	대각께서 오온의 설법에 대한 타파를 보여주시다	㉙	대각께서 화신의 설법은 곧 實法이니 삼신이 一體임을 보여주시다
29	주체[能]·객체[所]가 모두 공인데 인·과가 어디 있는가를 의심하다	53	법신은 적멸한데 어떻게 설하는지 의심하다
⑰	대각께서 진실한 믿음을 보여주시다	㉚	대각께서 반야의 진공과 묘관을 보여주시다
30	상에 머뭇이 없이 보시하여 마음을 일으키면 어째서 반야에 합치되는가를 의심하다	54	전편을 총결짓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상역과해금강경』은 54분과로서 특징에 엇보인다. 경문의 형식을 전반부 및 후반부로 나누고 도합 54분과로 설정하였다는 점, 경문의 내용에 대하여 의심을 주제로 37가지로 설정한 점이다.

2.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의 명칭 해석

본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1936년)는 경문의 경우 한문은 생략되고 한글번역만 수록되어 있다. 특징으로는 경문의 내용에 대하여 각 대목마다 분과 및 자세한 해설이 강의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용성은 전체적인 분과를 상·하권의 32분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다만 32분과의 명칭에 대하여 그 해석을 한글번역으로 시도하였다. 그리고 32분과를 기준으로 보면 오직 서분에 대해서만 내용에 따라서 다시 둘로 세분하였다.⁶⁸⁾

전체적으로 32분과에 의거하면서 해설에 있어서는 각 단락은 나누어서 총 상권(제1분-제14분)의 73단락, 하권(제15분-제32분)의 40단락 등 총 113단락으로 나누고, 112군데 걸쳐서 해설을 붙였다.⁶⁹⁾ 각 단락마다 붙인 해설의 경우에 축자적인 것을 지양하고 전체적으로 경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하고 있다. 상권(86쪽 분량)과 하권(32쪽 분량)으로 분류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단순히 이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문의 본문에 대하여 분류한 32분과의 기존 명칭에 대하여 비록 축자적인 번역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한글풀이를 한 점이 돋보인다.⁷⁰⁾

명 칭	해 석	명 칭	해 석
①法會因由分	청정한 대중이 법자리에 모인 이유	⑰究竟無我分	구경에 아가 없는 분
②善現起請分	수보리가 일어나 법을 청하는 분	⑱一體同觀分	일체로 보는 분
③大乘正宗分	큰 법 바른 중	⑲法界通化分	법계 통화하는 분
④妙行無住分	묘행이 주함이 있는 분	⑳離色離相分	색을 여이고 생을 여인 분

68) 용성은 서분에 해당하는 범회인유분에 대해서만 하나: 부처님께서서는 설하지만 아난은 설하지 못함을 증거로 삼다, 둘: 金剛大定에 들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보이시다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69) 32분과 가운데 ⑧ 의법출생분 대목에서 거듭 두 차례의 해설을 가하였고, ㉓ 무단무멸분 및 ㉔ 불수불탐분의 두 대목을 묶어서 한 차례의 해설을 가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113단락과 113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70) 김호귀, 『『금강경』 번역의 제문제-백용성 대종사 번역본 『금강경』의 구성 및 내용의 특징-』, 『전자불전』 15집, 2013.12.

⑤如理實見分	이치와 같이 실다히 보는 분	⑪非說所說分	설하되 설할 밥 없는 분
⑥淨信希有分	정신하는 것이 희유한 분	⑫無法可得分	법을 가히 얻을 것 없는 분
⑦無得無說分	얻은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는 분	⑬淨心行善分	정심행선분
⑧依法出生分	법을 의지하여 출생하는 분	⑭福智無非分	복지가 비할대 없는 분
⑨一相無相分	상과 무상분	⑮化無所化分	화하야도 화하는 바 없는 분
⑩莊嚴淨土分	정도를 장엄하는 분	⑯法身非相分	법신이 상 아닌 분
⑪無爲福勝分	하업없는 복승한 분	⑰無斷無滅分	끈는 것도 없고 멸함도 없는 분
⑫尊重正教分	정교를 존중하는 분	⑱不受不貪分	받지 않고 탐하지 않는 분
⑬如法受持分	법다히 수지하는 분	⑲威儀寂靜分	위의 적정한 분
⑭離相寂滅分	상을 여이어 적멸한 분	⑳一合理相分	일합상분
⑮持經功德分	경을 가진 분	㉑知見不生分	지견이 나지 아니한 분
⑯能淨業障分	능히 업장을 청정케 한 분	㉒應化非眞分	응화신이 참이 아닌 분

이들 32분과의 명칭에 대한 한글풀이는 용성이 처음으로 시도한 것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경전의 내용에 의거하여 풀이한 것보다는 제명에 노출된 용어 그대로에 대한 풀이로 보이는 까닭에 경문의 본 내용과 대조해볼 경우에는 여타의 경우와 비교가 필요하다. 가령 위에서 언급한 明의 王化隆이 붙인 「금강경삼십이분총제」에 보이는 경우와 사뭇 다른 모습이 엿보인다. 이로써 용성의 『신역 대장경금강경강의』가 지니고 있는 분과의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 분과의 특징으로는 서문을 붙이고, 본문에 대해서는 구마라집 번역본 가운데 소명태자의 32분과본에 의거하였다. 둘째, 32분과의 명칭에 대하여 독자적인 방식으로 한글풀이를 해줌으로써, 32분과에 대한 전체적인 대의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32분과 각 단락의 소재목에 대한 한글풀이를 함으로써 경문에 담겨 있는 단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다.

V. 결어

지금까지 『금강경』에 대하여 인도의 주석서 3종, 중국의 주석서 5종, 한국의 주석서 1종 등 다종을 통하여 분과 및 분과에 따른 명칭의 해석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이들 다종의 주석서는 분과와 32명칭에 대한 해석에서 나름대로 특징과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9종에 대한 주석서에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을 용성의 2종 주석서와 비교하여 용성 주석서가 보여주고 있는 특징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착의 7종의, 금강선의 12분과, 길장의 3단2주, 지엄의 3단, 함허의 3단 10문 등의 분과는 경문의 형식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분과이다. 이와 비교하여 용성은 『상역과해금강경』을 통해서 54분과로 구분하고 있는데, 문답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경전의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천친의 27단의, 종륙·여기의 27단의 분과는 경전의 문답형식에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그 문답내용에 따른 분과이다. 용성분과는 54분과도 내용으로는 대부분이 의심을 제기한 수보리의 질문에 상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서도 27단의와 다르게 41가지 부연설명을 통해서 제기된 수많은 의식에 대한 용성 개인의 견해를 동원하여 답변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용성의 『상역과해』의 분과는 5家の 분과가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문답의 형식과 문답의 내용에 대하여 아울러 지니고 있다.

셋째, 32분과의 명칭에 대한 해석에서 중봉명본은 32분과 명칭에 상응하는 경문의 내용을 들어 해석하였다. 그리고 왕화룡은 32분과 명칭이 지니고 있는 일련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그 인과성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였다. 이에 비해 용성의 32분과 명칭에 대한 해석은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이다. 이를 통해서 32분과 명칭의 용어 자체에 독자적인 방식으로 충실한 해석을 가하였다. 그리고 최초의 32분과 명칭에 대한 한글해석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로써 보자면 용성의 분과는 보다 전문적이고 세련된 학문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32분과 명칭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인 독자를 상대로 한 대중의 신앙적인 측면을 겨냥했다는 점이 엇보인다.

참고문헌

- 無著 造, 『金剛般若論』, 大正藏25
天親 造, 『金剛般若波羅蜜經論』, 大正藏25
金剛仙 造, 『金剛仙論』, 大正藏25
智儼 述, 『金剛般若波羅蜜經略疏』, 大正藏33
宗泐·如玘 同註, 『金剛般若波羅蜜經註解』, 大正藏33
中峰明本 著, 『天目中峰廣錄』, 大藏經補編25
宗密 述, 子瑯 治定, 『金剛般若經疏論纂要』, 大正藏33
道宣 撰, 『續高僧傳』, 大正藏50
孫念勛 纂, 『金剛經彙纂』, 卍新續藏25
己和 述, 『金剛般若波羅蜜經論貫』, 韓佛全7
- 『용성대종사총서』 제3권,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김호귀, 『정도혹문』, 하얀연꽃, 2015.
김호귀, 『금강경과해』, 한국학술정보, 2011.
김호귀, 『금강선론』, 한국학술정보, 2010.
김호귀, 『금강경약소』, 한국학술정보, 2010.
김호귀, 『금강경주해』, 석란, 2007.
김호귀, 『금강반야경소』, 석란, 2005.
平川彰, 『インド仏教史』, 春秋社, 1979.
- 윤점열, 『용성선사 역해 『금강경』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15.
김호귀, 『『금강경』 번역의 제문제-백용성 대종사 번역본 『금강경』의 구성 및 내용의 특징』, 『전자불전』 15, 2013.12.
김호귀, 『『금강선론』의 분과와 그 사상적 특징』, 『불교학연구』 19, 불교학연구회, 2008.4.
김호귀, 『함허의 『금강반야바라밀경운관』의 분과 고찰』, 『한국선학』 12, 한국선학회, 2005.12.
김호귀, 『길장의 『금강경』 분과에 대한 고찰』, 『불교학보』 42, 불교문화연구원, 2004.
김호귀, 『천친 『금강반야바라밀경론』의 四種心考』, 『한국불교학』 30, 한국불교학회, 2001.12.

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Division and Name of

Vajracchedikā-prajñā-pāramitā-sūtra

- Compared to Back-Youngsung's annotations -

Kim, Ho-gui

(Professor of Humanities Korea Project,
Academy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

So far, various notes on the *Vajracchedikā-prajñā-pāramitā-sūtra* have been examined. The specific targets were three kinds of Indian annotations, five kinds of Chinese annotations, and one kind of Korean annotations. And the subject was the interpretation of the name according to the division and division. As a result, various commentary books revealed their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nine kinds of annota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Back-Youngsung were compared. The two commentary books of Back-Youngsung are as follows. One is *Sangyukkwaehae-gungganggyoung* and *Shinyukdaejanggyoung-gangeui*. First, seven species of Asanga, 12 divisions of Gunggangsun, 3 divisions and 2 circles of Jichang, 3 divisions of Zhiyan, and 3 divisions and 10 segments of Hamheo were focused on the form of scripture.

In comparison, Back-Youngsung was divided into 54 divisions through Sangyukkwaehae.

First, Back-Youngsung is based on questions and answers and also aims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scripture.

Second, Vasubandhu's 27 question-resolutions and Zongle and Ruji's 27 question-resolutions are both the form of question and answer and the content of question and answer about scripture.

Third, about the name of 32 divisions, Zongfengmingben interpreted it as the contents of the scripture.

In three aspects, Back-Youngsung's commentary is characterized.

Key words

Vajracchedikā-prajñā-pāramitā-sūtra, Back-Youngsung, *Sangyukkwahae-gunganggyoung*,
Shinyukdaejanggyoung-gangeui, 32 division, 27 question-resolutions

논문투고일 : '21. 04. 07. 심사완료일 : '21. 05. 25. 게재확정일 : '21. 05. 25.